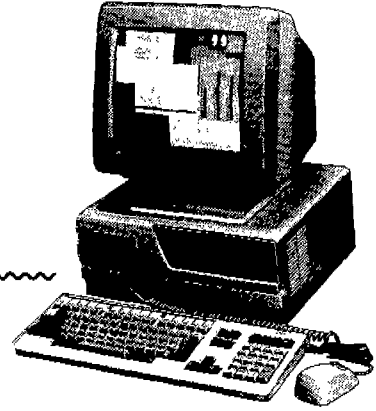


情報通信의 利用



(4)

李 巨 相

한국데이터통신(주) 정보통신연구소장

(2) 전자사서함 서비스

(가) 개 요

전자사서함(Electronic Mail)은 대용량 컴퓨터 내에 가입자 전용의 가상의 컴퓨터 사서함을 할당한 후 이를 통해 가입자 상호간에 메시지를 작성하고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전자사서함은 기존의 텔렉스나 팩시밀리 등의 통신수단보다 비용이 40-50%가 저렴하며 전송 속도가 빠르고 여러가지 편리한 부가기능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5월에 한국데이터통신(주)이 미국 Dialcom과 Notice를 연결하여 해외전자 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1989년 11월부터는 미국 MCI사의 World Mail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한편 국내용인 한글전자사서함 서비스는 1987년 4월에 상용화되었으며 국제 표준의 다중 매체간 메시지 통신 서비스인 MHS 서비스(서비스명 DACOM-MAIL 400)가 1989년 10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한편 1990년 1월에는 PC나 단말기 보유자의 통신욕구 충족을 위해 PC통신 서비스인 PC-Serve를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내 전자사

서함 시대가 열려 PC통신애호가들의 환영을 받고 있으며 앞서 시작된 한글전자사서함 서비스도 이에 흡수 통합되었다.

(나) PC-Serve 서비스

PC-Serve 서비스는 다양한 기능의 부가통신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PC통신 서비스로 1990년 1월부터 상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 기능은 전자우편, 게시판, 주제토론, 대화, 전자회의, 동호회, 폐쇄이용자 그룹 서비스(CUG), 여론조사, 공개편지, 온라인 게임 등이 있으며, 정보은행서비스인 천리안 II에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PC-Serve의 이용현황을 살펴 보면 금년 8월 현재 1만 5천명 이상의 가입자들이 하루 평균 3,700여 시간을 이용하고 있어 연 200~300%의 급격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PC통신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주로 이용하는 용도를 살펴 보면 표 4에서처럼 취미, 직업 등이 같은 이용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전문분야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동호회와 각종 소프트웨어나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개자료실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표 4〉 PC-Serve의 각 서비스별 월 이용시간

서 비 스	5 월			6 월			7 월		
	접속시간	순위	접유비	접속시간	순위	접유비	접속시간	순위	접유비
동 호 회	17,228	1	29.7	20,160	1	31.1	29,748	1	32.7
대 화	12,133	2	20.9	13,028	3	20.1	16,983	3	18.7
공 개 자 료 실	11,832	3	20.4	13,126	2	20.8	17,961	2	19.7
전 자 우 편	5,089	4	8.8	5,838	4	9.2	9,076	4	10.0
계 시 판	3,477	5	6.0	3,477	5	5.4	3,966	5	4.4
서 비 스 안 내	1,764	7	3.0	1,713	8	2.7	2,314	8	2.5
오 락	1,455	8	2.5	2,297	6	3.6	3,622	6	4.0
회 원 정 보	2,691	9	1.2	680	9	1.0	878	9	1.0
천리안Ⅱ, 예약인제	2,307	6	4.0	2,266	7	3.5	3,414	7	3.8
사 용 자 영 역	195	10	0.3	238	10	0.4	400	10	0.4
주 제 토 론	105	11	0.2	125	11	0.2	316	11	0.3
기 타	1,690	-	2.9	1,808		2.8	2,308		2.5
계	57,966	-	100.0	64,756		100.0	90,986		100.0

교환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MBC-FM의 '김기덕의 팝 교실'에 연결되어 PC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음악신청도 할 수 있게 되어 PC-Serve를 통한 천리안Ⅱ 접속 서비스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생활 서비스로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넓혀 가고 있다.

또한 금년내로 PC에서 FAX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FAX-OUT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며 Mail 400을 비롯한 국내 PC통신, 해외정보은행 및 해외전자사서함 서비스 등과의 연계도 추진하여 PC통신 이용자들의 정보욕구해소는 물론 PC의 활용도도 한껏 높일 계획이다.

유사한 국내 전자사서함으로는 한국경제 신문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K-mail을 들 수 있는데 가입자수에 있어서 PC-Serve를 능가하고 있으나 곧 상용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DACOM-MAIL 400 서비스

DACOM-MAIL 400 서비스는 기존의 각종

통신망과 단말기에 관계없이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제 표준방식의 메시지 전송 서비스로서, 1988년 개발이 완료되어 1989년 10월부터 상용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이 서비스는 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CCITT)에서 권고하는 X.400통신표준안에 따라 개발된 국내 최초의 MHS(Message Handling System) 서비스이다. 이는 서로 다른 전자사서함 간에 상호 호환성이 없는 기존의 전자사서함의 결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전화망, 텔렉스망, PC, FAX 등 통신망이나 단말기에 관계없이 이기종 통신 미디어 간에 통신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한글 메시지의 국내는 물론 국제통신도 자유롭다는 점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큰 이점이다.

1991년 8월말 현재 DACOM-MAIL 400 서비스는 국내 전지역은 물론이고, 해외는 일본, 미국, 프랑스, 홍콩 등의 14개 해외 MHS와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말경에는 접속 가능한 해외 MHS를 2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통신에서도 시험 서비스 중인 통합 VAN 서비스내에 MH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스태이타도 곧 서비스 개시에 착수할

예정이다.

(2) 해외 전자사서함

현재 제공되고 있는 해외 전자 사서함은 미국 INFONET사에서 제공하는 Notice와 MCII사에서 제공하는 World Mail의 2종류가 있다. Notice는 PC끼리의 통신은 물론이고, PC to FAX, PC to Telex 통신도 가능하여 기존의 FAX나 Telex에 비해 경제적인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무역, 외환, 운송 등 대규모의 국제통신의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금년 7월부터는 우리나라에도 INFONET Node가 설치되어 데이콤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통신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Word Mail은 각국의 통신망과 연결되어 순수 메시지 교환기능을 위주로 하는 전자사서함 서비스로서 자체 텔렉스 망과 전화망을 통해 텔렉스 및 FAX 이용자와의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기업간 전자식 거래 서비스(EDI)

(가) 개요

기업간 전자식 거래 서비스(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기업간 또는 업무간 긴밀한 관련업체 사이에서 간접 교환되던 거래문서 정보를 표준화된 기업간 거래식어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상대 기업의 컴퓨터간 직접통신으로 교환하는 보다 발전된 방식의 정보통신 서비스이다. 이는 컴퓨터간 통신에 의한 정보교환이라는 점에서 전자사서함과 비슷하나, 전자사서함이 인간대 인간의 통신임에 비해 EDI는 메시지를 표준화된 코드화하여 기계만이 판독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나) DACOM-E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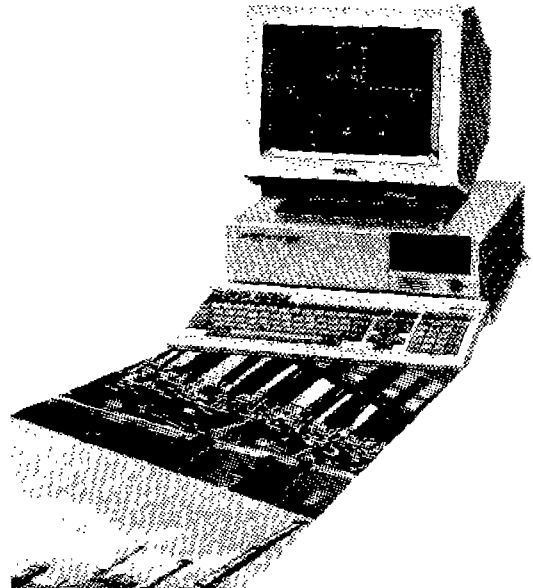
국내에 제공되고 있는 EDI 서비스로는 우선 한국데이터통신(주)의 DACOM-EDI를 들 수 있는데, 1987년 4월부터 포항제철과 관련업체를

중계 컴퓨터로 연결하여 주문정보, 상품가격 정보, 출하실적 등의 상호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철강 VAN을 개발하여 1988년 11월부터 상용화 되었으며 1991년 8월 현재 기아자동차, 쌍용 자동차, 해태제과, 화승, 금융기관, 현대백화점 등 12개 그룹 670개 업체가 EDI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주 및 발주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DACOM-EDI가 주로 이용되는 분야는 일정한 양식의 문서교환이 많은 기업체 간의 수발주 관리나 판매, 재고관리 업무에 유용하며, 특히 Firm Banking 기능을 이용한 금융기관자의 자금업체에도 많이 이용된다.

이러한 EDI의 보급은 통신시간 및 주문처리 시간 단축, 데이터 오류의 감소, 재고비용 감소 등으로 고객 서비스 향상과 사무처리의 효율성 향상 뿐만 아니라 기업간 거래형태나 경영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미래형 기업통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데이터통신(주)은 1991년중에 DACOM-EDI 시스템을 1,100여 업체에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통신과 포스텍이타, 삼성메이타시스템 등에서도 EDI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조만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에 있어 기업활동에 EDI의 거센 바람이 불 날도 머지 않은 듯하다.



3. VAN의 생활화

가. VAN을 이용하려면?

① 필요장비

PC와 모뎀을 갖추거나 통신용 단말기가 있으면 된다.

② 통신회선

대개의 경우 일반전화선을 이용하면 무방하며, 이용량이 특별히 많으리라 예상될 때는 DACOM-NET의 정보교환회선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③ 가입 상담

기업이나 연구단체에서 이용할 전문적인 서비스일 경우에는 미리 상담을 통해 서비스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접속 메모를 통해 목적했던 용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④ 가입

필요로 하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 사업체의 가입 담당부서로 전화를 해서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한국데이터통신의 PC-Serve와 천리안 II, 그리고 한국경제의 KETEL과 K-mail의 경우, 'Guest 등록'이라는 온라인 방식의 가입 방식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PC 보유자들의 경우에 가입이 더욱 편리하다.

⑤ 주요 VAN 사업체의 문의처

한국데이터통신 : 791-71114, 한국통신, 포스메이타, 한국경제신문

나. 생활속에 확산되는 VAN

이상의 설명을 통해 VAN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VAN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대강 이해하였을 것이다. 더불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VAN은 우리들의 생활에 깊숙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인류의 문명이 컴퓨터에 의해 또 한차례의 혁명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이 컴퓨터에 의한 혁명은 VAN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PC 보급

이 1백만대를 넘어섰으며, 2000년에는 1,0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아가 컴퓨터의 조기교육이 시도되고 있고, 한국 데이터통신 외에도 한국통신을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이 VAN 사업에 속속 참여하고 있어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VAN 서비스의 양과 질이 확대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선통신과 위성통신의 눈부신 발달, 초소형의 강력한 컴퓨터인 노트북 PC의 양산, 노트북 PC와의 무선통신과의 결합 등은 VAN을 중심으로 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가히 상상을 넘어서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VAN의 거대한 잠재력이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주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

먼저 VAN 사업자들은 보다 쉽고 편리한 VAN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통해 VAN의 대중화에 앞장서야 하며, 컴퓨터 관련사업자들 또한 PC의 보급과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VAN의 생활화를 위한 저변확대에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VAN의 활용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DB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보유의 각종 정보를 과감히 공개하여야 하며 국제 VAN 개방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VAN의 발전을 구축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과 기업 개개가 VAN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므로써 'VAN=침단=어렵다,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콤플렉스를 벗어나 VAN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VAN이 마련하는 유용성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미래사회를 정보화사회라고 예견한다. VAN이라는 거대한 공룡을 피하지 않고 지배하는 자만이 정보화사회의 요체인 정보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재 끝)